

**2013년 100대 기업의 추석 前
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**
·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73개사를 포함한
100대 기업(매출액 기준)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·

2013.9

목 차

< 요약 >	5
I. 조사개요	7
1. 조사목적	7
2. 조사대상	7
3.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	7
4. 조사내용	7
II. 조사결과 : 2013년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 ...	8
1.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	8
2.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 및 지급수단	9
III. 시사점 및 제언사항	12
1. 조사결과의 시사점	12
2. 제언사항	12
<별첨> 「2013년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조사」 결과	14
<참고문헌>	15

■ 이 자료는 사업팀 윤지훈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
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TEL : 02-6336-0618 FAX : 02-3771-0143 E-mail : jhyun@fkilsc.or.kr

1.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3.8.19~2013.9.4(17일간)
- 조사대상 :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73개사를 포함한 100대 기업(2012년 매출액 기준)
- 조사방법 : 주관식 설문을 통한 설문지 조사(E-mail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)

2. 조사결과 : 2013년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

(1)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

- 100대 기업의 71%(71社/100社)는 올해 추석 前에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0대 기업 중 65%(65社/100社)가 지난해 조기지급을 집행하였고, 올해는 전년대비 6%p(6社) 증가한 71%(71社)가 ‘조기지급 계획이 있다’고 응답함
- 조기지급 계획이 있는 71개사 중 85.9%(61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조사되어 이들 기업이 명절 前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선도하고 있음
 - 지난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65개사 중 81.5%(53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, 올해는 지난해보다 4.4%p 증가함

(2)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 및 지급수단

- 지난해 100대 기업은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으로 4조 2,77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한데 이어, 올해는 이보다 12.3%(5,240억 원) 증가한 4조 8,010억 원의 납품대금을 先지급함
 - 전국경제인연합회·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수 년 동안 자발적인 명절 前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독려하였고, 그 결과 기업들이 명절 前 조기지급을 자연스러운 동반성장 활동으로 인식·실천하는 추세임
 - 이에, 지난해 추석보다 올해 대기업의 조기지급 여건이 악화되고,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졌음에도 조기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2.3% 늘림
 - 동반성장 의지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살아나 납품대금 조기지급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조기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
- 올해부터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상 ‘금융(자금)지원’의 ‘직접지원’에 ‘명절前 기성금 先결제’ 항목이 추가되는 등 조기지급 집행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도 조기지급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됨
- 100대 기업은 총 조기지급액 4조 8,010억 원 중 98.9%(4조 7,488억 원)는 순수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로 지불함
 - 세부적으로 순수 현금결제는 88.8%(4조 2,614억 원)에 이르고, 기업구매카드·구매론(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) 등 현금성결제는 10.1%(4,874억 원), 어음결제는 1.1%(522억 원)에 불과함
- 한편,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지 않은 29개사의 평균 납품대금 지급기일이 하도급 법상 지급기일인 60일보다 40일 이상 빠른 19.9일로 조사됨
 - 29개 대기업 중 7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7.2%(5社), 15일 이내 41.4%(12社), 30일 이내 27.6%(8社), 60일 이내는 13.8%(4社)로 나타남

(3) 시사점 및 제안사항

- 경제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요 기업들이 올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자발적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명절 前 조기지급 풍토가 대기업 전반에 확산됨
- 하지만, 앞으로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온기가 2·3차 협력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중견·중소기업 간으로 납품대금 조기지급 풍토가 확산되어야 함
-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조건과 지급규모는 대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·중소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주력해야 함
-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 간 명절 前 납품대금 조기지급 풍토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, 현금결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설, 추석 등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, 생산·판매 및 대금회수 중단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급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이에,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73개사를 포함한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지급계획을 조사하여 조기지급 풍토를 확산하고, 보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

2. 조사대상

- 조사대상 :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73개사를 포함한 100대 기업(2012년 매출액 기준)
- 조사응답률 : 100.0%(100社 대상, 100社 응답)

3.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

- 조사방법 :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. 전자메일 조사와 전화 인터뷰 병행
- 조사기간 : 2013. 8. 19~9. 4(17일간)

4. 조사내용

- 2012년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이행실적 및 2013년 조기지급 계획
-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 및 지급수단
 - 조기지급 규모 : 2012년 실제 조기지급 금액, 2013년 조기지급 계획 금액
 - 조기지급 수단 : 순수 현금결제, 현금성결제, 어음 등 지급비율
 - * 현금성결제 : 수표, 기업구매카드, 구매론(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)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대체결제수단
- 명절(추석) 관련 협력사 지원 우수사례 등

Ⅱ. 조사결과: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

1.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

□ 100대 기업의 71%(71社/100社)는 올해 추석 前에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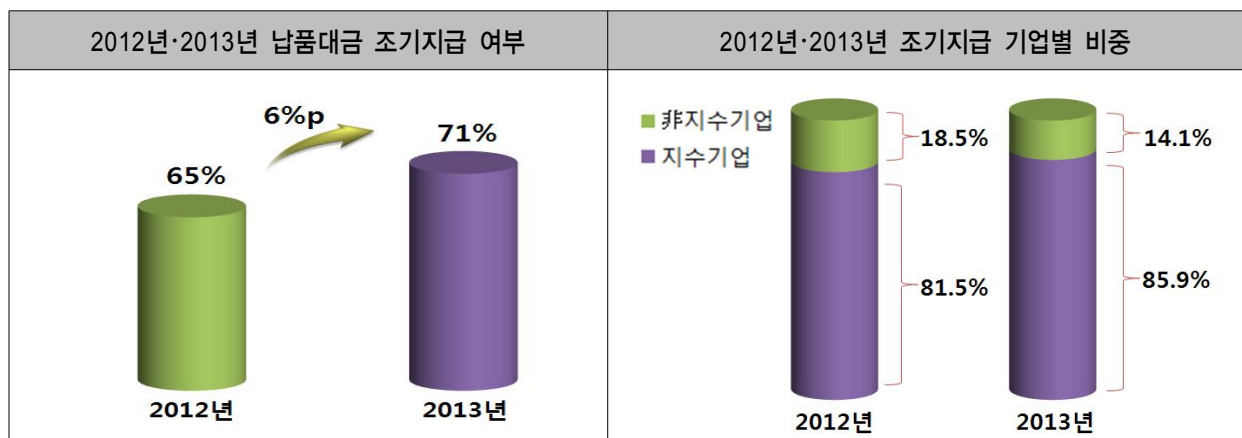
-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0대 기업 중 65%(65社/100社)가 지난해 조기지급을 집행하였고, 올해는 전년대비 6%p(6社) 증가한 71%(71社)가 ‘조기지급 계획이 있다’고 응답하여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보임
- 설, 추석 등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, 생산·판매 및 대금회수 중단 등으로 자금수요가 많아 지나, 중소기업은 매출부진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

* 2013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의가 631개 개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」에 따르면, 자금사정이 ‘곤란하다’(43.6%)고 응답한 기업이 ‘원활하다’(13.4%)는 기업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

□ 조기지급 계획이 있는 71개사 중 85.9%(61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조사되어 이들 기업이 명절 前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선도하고 있음

- 지난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65개사 중 81.5%(53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, 올해는 지난해보다 4.4%p 증가함
- 특히, 조기지급을 집행한 전체 기업은 전년 대비 9.2%(65社→71社) 늘어난 반면,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은 15.1%(53社→61社)의 증가율을 기록함
- 또한,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, 올해 조기지급을 집행한 13개사 중 84.6%(11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조사됨

<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여부 및 기업별 비중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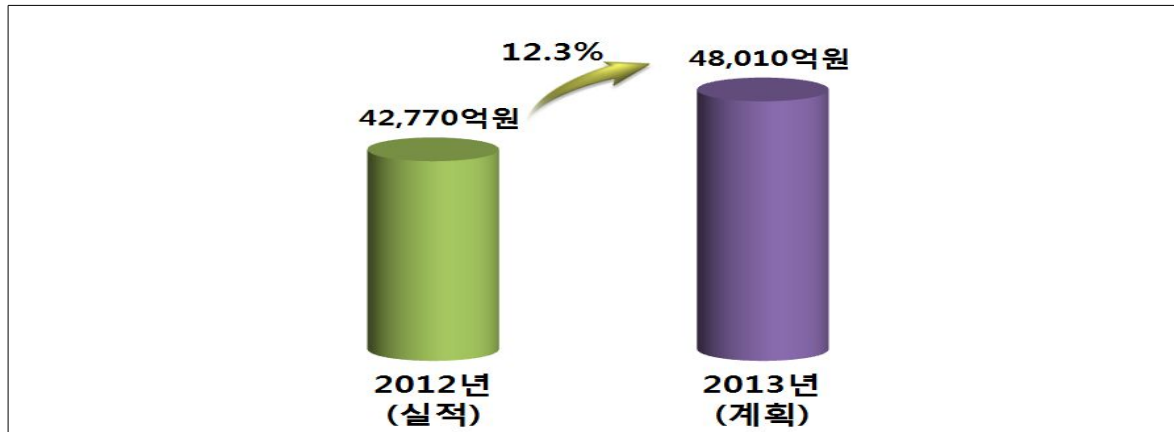


2.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 및 지급수단

□ 지난해 100대 기업은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으로 4조 2,77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한데 이어, 올해는 12.3%(5,240억 원) 증가한 4조 8,010억 원을 지급함

○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매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명절 前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독려해왔으며, 그 결과 기업들의 명절 前 조기지급 풍토가 정착되고 있음

<100대 기업의 2012~2013년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 추이>



○ 이에, 지난해 추석보다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대기업의 조기지급 여건이 악화됐으나, 오히려 주요 대기업은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2.3% 늘림

- 지난해 추석(9월)의 자금사정 전망 SBHI¹⁾가 81.3, 올해 추석(9월)은 85.5로 나타나 중소기업(제조업)은 스스로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음

- 그러나 대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기업실적이 부진했고, 경기상황과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음

* 주요 대기업의 2012년·2013년 2/4분기(4~6월) 영업이익 비교 : 현대자동차 34.9% 감소(2조 924억 원→1조 3,628억 원), LG전자 13.0% 감소(4,017억 원→3,495억 원), 포스코 3.9% 감소(7,461억 원→7,169억 원), 현대중공업 61.7% 감소(9,858억 원→3,777억 원)

* 기업경기실사지수(종합, 전망)²⁾ 비교 : 99.5(2012.9) → 94.4(2013.9) 5.1p 하락

* 기업경기실사지수(자금사정, 전망)³⁾ 비교 : 97.1(2012.9) → 96.9(2013.9) 0.2p 하락

- 이처럼, 지난해와 비교하여 조기지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100대 기업의 조기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요 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

○ 다만, 올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다소 살아나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
1) 통계청(2013), 「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」

2) 전국경제인연합회(2013.8), 「기업들, 4개월 연속 경기 비관」 보도자료

3)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(2012.8, 2013.8)

-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(전국전망)⁴⁾에 따르면, 제조업의 업황전망BSI는 78(7월)에서 73(8월)으로 하락하였으나, 77(9월), 82(10월)로 상승하여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, 8월 제조업재고증가율⁵⁾은 7.0%(7월)에서 3.4%로 3.6%p 낮아짐

○ 올해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 ‘금융(자금)지원’의 ‘직접지원’에 ‘명절 前 기성금 先결제’가 추가되는 등 조기지급 집행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일부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

- 동반성장지수 건설업종 평가기업(17社) 중 지난해에는 64.7%(11社)가 조기지급을 집행한 반면, 올해는 11.8%p(2社) 늘어난 76.5%(13社)임

□ 100대 기업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총액 4조 8,010억 원 중 98.9%(4조 7,488억 원)는 순수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로 지불함

○ 세부적으로 순수 현금결제는 88.8%(4조 2,614억 원)에 이르고, 기업구매카드·구매론(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) 등 현금성결제는 10.1%(4,874억 원), 어음결제는 1.1%(522억 원)에 불과함

* 구매론(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) :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, 납품업체가 구매업체에 납품을 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,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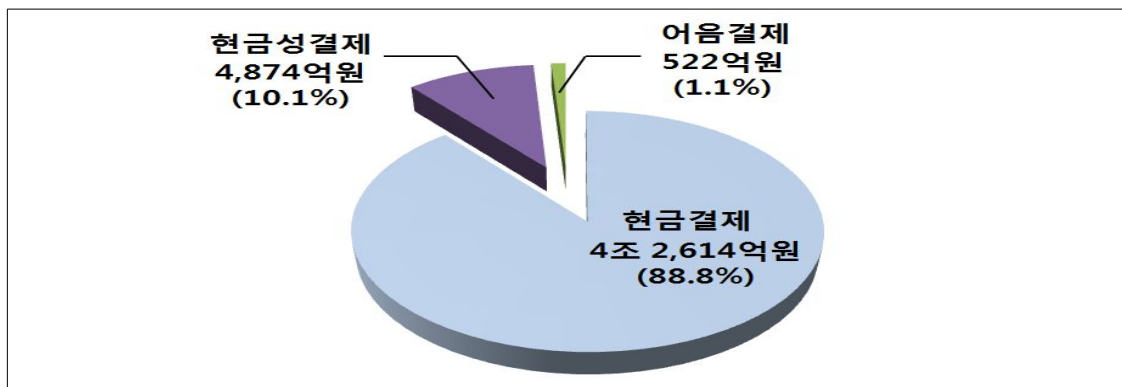
* 기업구매카드 : 구매론과 유사하나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음.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일정규모의 신용한도를 금융기관에서 부여받고,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카드결제 정보를 보내면 납품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음. 이후 정해진 기일에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함

- 공정거래협약평가의 결제수단 개선에 대한 배점이 점차 줄고 현금결제에 대한 조세혜택도 전무하나,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순수 현금이 결제수단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

* 공정거래협약평가 ‘결제수단(현금) 개선’ 배점 추이 : 11점(2011) → 10.4점(2012) → 8.4점(2013)

* 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’에 따르면,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경우, 구매대금의 0.5%(중소기업에 지급 시)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, 현금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음

<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규모>



4)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(2013), 「기업경기실사지수」

5)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(2013), 「제조업재고지수」

□ 현대홈쇼핑, 대우건설, 두산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 임직원의 명절선물 구매비용을 할인해주거나 긴급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

○ (현대홈쇼핑 지원사례) 협력사 임직원이 현대Hmall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선물을 구매할 때, 최대 5%의 할인혜택을 제공함

○ (대우건설 지원사례)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180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편성하여 무이자·무담보로 대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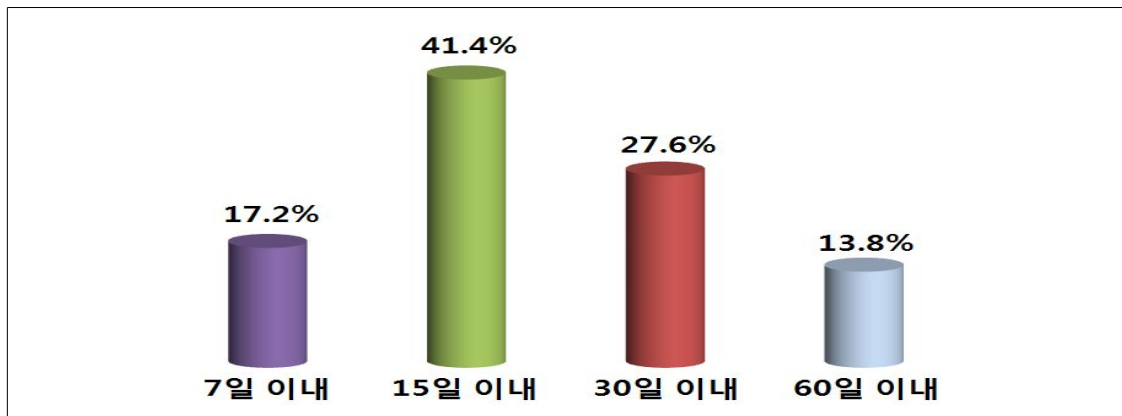
○ (두산중공업 지원사례) 추석 前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은 1차 협력사들이 2·3차 협력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함

□ 한편, 올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지 않은 29개사는 평균 납품대금 지급기일이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인 60일보다 40일 이상 빠른 19.9일로 조사됨

○ 29개 대기업 중 7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7.2%(5社), 15일 이내 41.4%(12社), 30일 이내 27.6%(8社), 60일 이내는 13.8%(4社)임

- 이들 기업의 협력사들은 납품대금을 추석 前에 앞당겨 받지 못해도 지급기일이 하도급법보다 40일 이상 빠르기 때문에 자금수급에 애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

<추석 前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지 않은 29개사의 지급기일 현황>



Ⅲ. 시사점 및 제언사항

1. 조사결과의 시사점

□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조건과 지급규모는 대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불황 시 대·중소기업 간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

-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은 곧 대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원부자재 등의 구매비용이기 때문에 완제품의 시장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음
- 이에, 대기업이 시장성과에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구매물량을 늘려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에는 대기업의 조기지급 여력조차 줄어들
- 조기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자손실 등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대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

*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3곳이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기지급을 집행하지 않았음

□ 하지만, 불황에도 올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자발적으로 앞당겨 지급한 주요 대기업이 전년보다 6%p(6社) 늘어나는 등 명절 前 조기지급 풍토가 확산되고 있음

- 올해 추석은 지난해에 비해 직전 분기의 기업실적이 부진하고, 경기불황으로 대금 지급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,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에 힘입어 오히려 1社당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가 지난해(658억 원)보다 2.7% 증가한 676억 원에 이름
- 100대 기업 중 올해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인 기업이 71%(71社)로 작년 65%(65社)보다 6%p(6社) 늘어남
- 특히,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71개사 중 85.9%(61社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이 명절 前 조기지급 개선을 선도하고 있음
- 또한, 이들 기업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액(4조 8,010억 원) 중 88.8%(4조 2,614억 원)를 순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정한 납품대금 결제문화가 정착됨

2. 제언사항

□ 앞으로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온기가 2·3차 협력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중견·중소기업 간으로 납품대금 조기지급 풍토가 확산되어야 함

-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조기에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2·3차 협력사에도 조기에 지급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계에서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음

- 반면, 대기업들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자체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독려와 사후점검 등 다양한 명절 前 조기지급 모니터링이 마련되어 있음
- 취약한 관리·감독체계로 1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2·3차 협력사의 자금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
- 중소기업중앙회의가 8월 발표한 「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」에 따르면, 중소기업(31.2%)보다는 소기업(45.7%)에서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
□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간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 풍토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고, 현금결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

- 정부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조기지급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보다는 주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대금지급을 권고·독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·활성화하고 있음
- 실제로, 주요 대기업들은 1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해 1·2차 협력사 간 조기지급을 권고하고 지급실태를 점검함
- 그리고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지도·점검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체감도 조사에서 2차 협력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5개→10개, 반영비율을 5%→10%로 확대함
- * '대기업이 지급한 납품(용역)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원활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'하는 설문항목이 신설됨
- 또한, 협력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순수 현금결제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현금결제를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함
-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현금결제 개선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고 있으나, 중소기업에는 현금결제를 독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부재함
- 따라서 현금성결제와 같이 현금결제에도 법인세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, 현금결제를 시행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<세액공제 도입예시>

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· 현금결제로 3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5% 공제	· 현금결제로 3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7% 공제	· 현금결제로 3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10% 공제
· 현금결제로 6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05% 공제	· 현금결제로 6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07% 공제	· 현금결제로 6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10% 공제
	· 현금성결제로 3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5% 공제	· 현금성결제로 3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7% 공제
	· 현금성결제로 6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05% 공제	· 현금성결제로 60일 이내 지급 : 구매금액의 0.0007% 공제

「2013년 100대 기업의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조사」 결과

1. 2013년 추석 前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 여부

구분	조기지급 계획 있음	조기지급 계획 없음	전체
응답수(개)	71	29	100
비율(%)	71.0	29.0	100.0

2. 최근 2년간(2012~2013년)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

연도	2012년(실적)	2013년(계획)
금액(억 원)	42,770	48,010

3. 납품대금 조기지급 수단(조기지급 계획이 있는 71社)

구분	현금결제	현금결제+ 현금성 결제	현금결제+어음결제	합계
응답수(개)	53	11	7	71
비율(%)	74.6	15.5	9.9	100.0

4. 조기지급 총액(4조 8,010억 원) 中 지급수단별 비중

구분	현금결제	현금성결제	어음	합계
금액(억 원)	42,614	4,874	522	48,010
비율(%)	88.8	10.1	1.1	100.0

5. 조기지급 계획이 없는 29社의 평균 납품대금 지급기일 : 19.9일

참고문헌

동반성장위원회(2013.5), “2012년 동반성장지수 결과발표” 보도자료

전국경제인연합회(2013.8), “기업들, 4개월 연속 경기 비관” 보도자료

통계청(2013), “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”

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(2013), “기업경기실사지수”

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(2013), “제조업재고지수”

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(2012), “100대 기업의 2012년 추석 前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”